

2017년 5월 26일,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노인회관, 이현정 조사.
고응부(남, 1935년생, 구좌읍 종달리)

- 줄거리: 가난한 노부부가 있었다. 하루는 이웃사람이 할머니를 찾아와 이 집 밭의 담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빨리 메우지 않으면 가축이 들어 밭작물을 망칠 것이란 충고를 해주었다.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돌담을 다시 메우고 올 것을 부탁한다. 밭에 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팽나무 아래서 장기를 두는 것을 보고 할머니의 말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, 훈수를 두게 된다. 그런데 두 사람이 두는 장기에 한 쪽 편으로 붙어 훈수를 두면 상대방이 화가 나서 할아버지의 뽕을 때리고, 또 다른 사람에게 훈수를 두면 다른 상대방이 뽕을 때려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. 한참을 기다려도 할아버지가 오지 않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다가 이 사실을 마을 사람에게 전해 듣고 노부부는 싸움을 하였다는 이야기이다. 하지만 노부부는 결국 화목하게 잘 살았다고 전한다.

[제보자] 이웃집 할아버지하고 할무니가 살았는데, 좀 가난헤이. 뭐 헛는데. 할무니가 그 나간 댄 사람한테 말을 들었거든이?

“당신네 밭디는 도가 터졌다. 음, 토가 터지니까, 올라도 가가지고 담을 안 다면은 우마가 들어가가지고 뭐가 될 거니까. 하르방한테 골아그네 불릅서.” 영 헛거든?

겐 하르방은 할망이 아침에는 일어나니까,

“하르방 가그네 밭 강 담 돌앙와. 누게 골으멘 이렇게 이야기 허고 밭담 무너졌덴 헛인게.”

오늘 쉼나 뭐나 들문은 곡식이 하나토 엇일 거 아니야게, 먹어불문은. 겐 할망이 시겼다. 하르방은

“아이, 그러주.”

헨 나간 거라.

나가다가 길 거리 딱 이 팽나무 잇지이? 팽나무 밑에서 이 앓앙 놀기 좋거든? 여름에. 하르방덜끼리 앓아가지고 장기를 두는데, 하르방은 (웃음) 강 오다그네 그것을 귀경해곡 놀아도 될 건데, 가는 길에다가 딱 보니까 자기가 거이 다 아는 거거

든?

거니까 이제 거기 펜을 드는 거라. 이쪽 펜도 들곡 저쪽 펜도 들곡게. 거든 이쪽 펜 사람은 기분이 나쁠 거 아냐. 자기 응원을 안 해주니까. 겐 뽀뽀 훈 번 맞아이? (웃음) 경 험 저쪽 사람도 또 이제 우월허그든이. 때린 사람은 우월허고. 그든 또 이쪽 사람한테 뽀뽀를 맞아이.

경 허단 보니까 집이 할망은 아무리 기다려도 하르방이 아니 올 거 아냐? 안 와 가니까 동네에서

“막이, 저 집에서 나가서 아니왔다.”

고.

“말도 말아. 그 저디서 하르방 그 장기 두는 데서 놈 흔들당 매만 맞았젠.”

그런 전설이 있어.

[조사자] 경 험그네 그 할망하고 하르방하고 막 싸완마씨?

[제보자] 어. 싸와그네 나중엔 잘 살았덴 험. (웃음)

- 핵심어 : 할아버지, 할머니, 밧, 담, 팽나무, 장기, 뽀뽀, 매, 훈수, 하르방, 할망